

‘17개 시도 유일’ 제주라이즈센터 타지역 성과 공유... “벤치마킹 기회 확대”

주지영 기자 | 승인 2026.03.06 12:42

제주라이즈센터서 보는 ‘전국 RISE 소식’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소식지도 함께 게재
“여러 대학 우수사례 벤치마킹 독려 차원”



제주라이즈센터 홈페이지 ‘전국 RISE 소식’ 코너. (사진= 제주라이즈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제주라이즈(RISE)센터가 센터 홈페이지에 다른 시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라이즈) 성과를 공유하는 코너를 마련해 대학가의 관심이 쏟아진다. ‘5극 3특’ 전략에 맞춰 광역시·도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 간 성과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라이즈센터가 센터 홈페이지에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타지역 라이즈 성과·소식을 전하는 코너로 ‘전국 RISE 소식’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다.

‘전국 RISE 소식’은 제주라이즈센터 홈페이지 홍보마당에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전국 라이즈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 라이즈 성과 홍보 소식지를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현재 총 31건의 전국 라이즈센터 소식지가 게재돼 있다. URL로 해당 지역 라이즈센터로 이동할 수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포함돼 도내 대학이 정부 부처 소식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지역 라이즈센터 대부분은 권역 내 지역 대학들의 성과 공유가 중심이다. 권역 내 대학 성과 공유만으로 지역 대학 간 벤치마킹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제주의 경우 도내에 3개 대학이 있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적어 지역 대학끼리 우수사례를 참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제주라이즈센터는 ‘대학 수가 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 RISE 소식’으로 도내 대학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이외 지역의 다양한 라이즈 운영 사례와 우수성과를 공유해 제주도와 제주 지역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철호 제주라이즈센터 성과관리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내 대학들이 타지역 라이즈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해당 코너를 마련했다”며 “대학 사업단에서도 해당 코너에서 다른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참고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